

“우리는 기도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주님의교회가 표방하는 일곱 가지 중 첫 번째는“기도”이다. 이 가치를 앞장서서, 그러면서도 가장 은밀하게 담당하는 사람들. 바로 중보기도사역팀(박혜성 목사)이 지난 11월 5일(목) 교회에서 전체수련회를 가졌다. 현재 중보기도사역팀 내에는 라파, 레위, 모세, 미션, 비전, 엘리야 등 여섯 개 그룹이 있고, 여섯 개 그룹 안에 모두 16개의 기도팀이 조직되어 중보기도 사역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수련회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시 116:2)라는 말씀을 주제로 하여 찬양기도회와 말씀기도회, 웃음치료와 모듬별 수련활동 등을 통해 중보기도자의 사명과 열정을 새롭게 품는 기회가 되었다. 사역팀을 넘어 주님의교회 온 교우들이 중보기도의 삶으로 교회와 이웃, 세상을 품고 섬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 -(중보기도사역팀)

“시험”중에 함께 하시 는 하나님



지난 11월 8일 4부 예배 시간에 수험생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등부 교사와 교역자와 장로, 그리고 예배에 참여한 교우들이 수험생과 부모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였다. 한편, 11월 12일(목) 수능일에는 수능생학부모기도회가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세계교회협력센터에서 있었다. 학생들의 시험시간표를 따라 130여명의 학부모들이 간절히 기도하며 찬양하였다. 무엇보다도 간절한 것은 시험결과에 연연해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바라볼 수 있게 해 달라는 기도였다.

-이미경 기자

1남선교회 가을 수련회



11월 2일 제 1남선교회 34명의 회원이 가을수련회를 다녀 왔다. 교회를 출발하여 희끗희끗 날리는 눈발 속에서, 시원하게 만들어진 인제, 원통의 산간도로를 지나 진부령 정상에 올랐다. 30cm이상 쌓인 눈에 단풍보다 맑고 흰 설화(雪花)를 보면서 탄성이 절로 나왔다. 서울에서는 보지 못한 사계절을 한꺼번에 보면서 사진으로 추억을 담았다. 통일전 망대에 도착하여 분단된 조국의 아픈 현실을 직시하고 철조망 너머에서 고통 받는 북녘 동포를 위해 기도하였다. 이후 6.25 전쟁기념관을 관람하여 비참했던 지난 역사를 되새기며 이 땅의 평화를 위한 숭고한 희생을 생각하였다. 돌아오는 길, 읍바위 해안가에서 휴식을 취하고 오가는 길에 장순길 집사의 강의로 유익함이 더한 여정이었다.

-송승엽 안수집사 (제1남선교회장)

장애인볼링대회



지난 11월 15일 주일, 주님의교회 장애우들이 볼링대회를 통해 박수와 함성을 같이 주고 받으며 주 안에서 하나되는 시간을 가졌다. 담임목사님과 두분 부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두 50명이 2시간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조를 바꾸어가며 정말 열심(?)으로 볼링을 즐겼다. 교우들의 정성스런 후원으로 준비한 상품이 골고루 전달되고, 교회로 돌아온 일행을 맞은 오늘의 메인 이벤트는 “사모님표 스파게티”. 정성으로 직접 준비해주신 그 맛은 주위를 의식하지 않고 먹고 더 먹고를 반복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수화와 음성으로 생일축하노래를 합창하고 교문을 나설 때, 잡설벌의 매서운 칼바람도 그 위용을 접고 봄바람 같은 훈풍으로 우리의 장애우들을 감싸고 있었다.

-최성준 안수집사 (장애인사역팀장)



성극 “퀸에스더” 공연

성극팀의 성극 공연이 12월 2일 오후 7시 30분수요예배시간에 대예배실에서 열린다. 구약성서 에스더서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고백하며 민족을 구한 에스더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만든 작품이다. 이번 공연은 ‘건너가게 하소서’ ‘살로메’ ‘십자가의 길’에 이어 성극팀의 네 번째 작품이다. 가족 및 교우들과 함께 연극을통한 감동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오늘의 말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관개 하라”
마가복음 1:3

통 권 제 257호

발행처 _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_ 2009년 11월 22일

함즐함울
www.pcltv.org

TEL 416.5181-2 FAX. 416.5180

대림절을 바라보며...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1. 대림절이란?

초대교회 때부터 있어왔던 교회력에는 6가지가 있다. 대림절, 성탄절, 현현절, 사순절, 부활절 그리고 오순절이다. 대림절은 교회력의 시작으로서, 주후 4세기경에 초대교회에서 지켜지기 시작하였다. 이 대림절은 성탄절 4주전부터 시작을 하며(올해는 11월 29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그런데 7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로서의 의미가 추가되었다. 그래서 그 때부터 대림절은 단순히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에서 더 나아가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으로 지켜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대림절의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중 하나는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시 오셔서 우주 삼라만상을 다스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것이다.

2. 대림절 “Advent”의 의미

대림절을 뜻하는 Advent는 라틴말 adventus에서 온 것으로, “오다” “도착하다”라는 뜻이다. 원래 이 말은 로마 제국에서 아우구스투스(B.C. 68-AD14)의 시대 이래로 신적인 영예가 주어진 로마의 황제가 즉위한 후에 로마의 도시들과 지역에 최고의 통치자로서 축하의 방문이 있었는데, 그 때 황제의 방문을 “His Advent”라고 표현한 것에서 유래한다. 그런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우리의 주님이시요, 황제라고 생각하여 그 단어의 개념을 “구세주의 오심”(The Coming of our Savior)이라는 의미로 바꾼 것이다. 그러므로 Advent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이다.

3. “마라나타”와 대림절

1세기 이래로 초대교인들은 늘 “마라나타(Maranatha)!”(요한계시록 21:20)를 고백하여 왔는데, 이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신앙고백이다. 그런데 이 말은 두 가지로 번역을 할 수 있다. 명령형으로 번역을 하면 “마라나-타”, 즉 “Come! our Lord”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Not Yet) 사건에 대한 소망이 담기게 된다. 그러나 이 말은 “마란-아타”라고 하는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사건을 표현하는 완료형(Already)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 때는 “Our Lord has come”으로, 주님이 이미 오셨다는 뜻이 된다.



*전시된 작품은 구입 가능하며 판매 대금은 선교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제1회 전시회 판매 대금은 실로암 안교병원에 기증, 약 11명의 개인수술에 사용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maran-atha, 즉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오셨다는 믿음과, marana-tha, 즉 미래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 사이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라나타”의 외침 속에는 과거에 대한 우리의 “감사”와 미래에 대한 우리의 “소망”의 고백이 담겨져 있고, 대림절은 바로 이 귀한 신앙고백을 하는 계절이다. 그러므로 대림절 기간 동안 온갖 괴로움과 고통 그리고 슬픔의 회복을 소망함과 동시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하심이 왔음을 기뻐하며 감사한다. 이 세상의 모든 검과 무기들을 부수어서 보습이 되기를 갈망함과 동시에, 이미 이 땅 위에 평화의 왕께서 나타나신 것을 기뻐한다. 결국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이미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에 감사하고, 그 분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것이다.

4. 대림초

대림절 기간동안 매 주일 하나씩 새 촛불을 붙이는데, 주님이 오셔서 세상과 우리의 마음을 죄의 어둠에서 해방시키시고 진리의 빛으로 채워주심을 뜻한다. 대림절 첫 주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게 하고 경고하며 초 네 개중 한 개 (진보라색)를 점화한다. 둘째 주는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것을 예고하며 회개를 촉구하면서 연보라색 초 한 개를 더 점화한다. 셋째 주는 그리스도 탄생이 임박하였으니 준비하고 기뻐하라고 권고하는 의미로 분홍색 초 한 개를 더 점화한다. 넷째 주는 그리스도 탄생을 기뻐하며 그분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의미로 네 개중 마지막 흰색 초에 점화한다. 대림절 기간동안 초의 색깔이 차츰 밝은 색으로 바뀌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으로 가까이 오고 계심과 주님이 세상의 빛이시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교회 가을풍경” 2면

새가족이야기 · 세례교우간증 3면

1남선교회 가을 수련회 4면

장애인볼링대회 4면



함께함

전교인 걷기대회 - 다문화가정과 함께 걸어요!

10월 10일 토요일, 송파, 하남지역 다문화 가족과 함께한 전교인 걷기대회에 다문화가족 250여명과 교인 약 1,000명이 참여하였다. 가을의 청명한 하늘과 커다란 잎들이 넘실대는 양재천의 투명한 물길을 따라 걷는 6km 산책로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과 계절을 만끽하였다. 교회에서 제공한 빨강, 노랑의 코스 색을 메고 삼삼오오 짝지어 걸어가느 교우들의 모습이 마치 소풍가는 아이들 같다. 안내 봉사자와 찬양팀, 송파 다문화 풍물놀이팀, 이어서 난타공연과 베트남 다문화팀의 공연, 성금 전달과 행운권 추첨 등, 여러 사람들의 성김 속에 즐거운 시간을 나누며,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로 모두가 하나임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걷기대회 참가비로 천삼백 삼십육만원과 교회 예산을 합하여 송파구의 다문화가정과 하남에서 다문화가정을 섬기는 하남외국인비전센터 등에 총 이천칠백육십만원이 지원되었다.



“

우리교회

가을풍경”

만남

늘푸른대학

매주 화요일 약 130명 내외의 ‘학생’이 늘푸른대학에 참여하고 있다. 예배와 강의, 그룹별 특별활동에 함께하는 즐거움이 더해진다. 스담들과 교사, 온 마음으로 정성을 담아 점심식사를 준비하는 손길들 의어우러짐이 무척이나 아름답다.



거듭남

입교 세례예식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28:19) 지난 11월 1일 4부예배 시간에 입교 6명, 세례 61명의 입교, 세례예식이 진행되었다. 세례 받은 이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늘 함께하시기를...



은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신앙사경회

10월19일(월)부터 21일(수)까지 필립안사와 함께 한 3일간의 여정. 어찌보면 어려운 주제들을 현학적이고 난해한 답변이 아닌,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곧 실천 가능할 것도 같고, 마음이 아직 길지 않아 갈 길이 먼듯한 이들에게도 친구처럼 가까이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었다.



나눔

농촌과의 나눔 직거래장터

이웃과 함께하는 농수산물 직거래장터가 지난 11월 14일 토요일 정선여중과 운동장에서 열렸다. 주님의교회 선교사역부문의 농어촌교회선교사역팀과 도시개척교회 선교사역팀에서 이미 지원하였거나 현재 지원하고 있는 15개 농어촌 교회 및 기관과 함께 맡을 수 있는 농수산물을 직거래하여 도시와 농촌의 상생의 장을 마련하고, 농촌선교를 지원하는 취지로 연 것이다. 금년에는 지역사회를 초월하여 세계와 함께하는 차원에서 기아대책기구 산하 직영기관에서 생산하는 농산물도 판매하였고, 총 5천여만원의 매출이 이루어졌다. 특히 여성교회에서 준비한 먹거리는 바람불고 추웠던 정터의 맛과 맛을 물구는데 크게 기여 했다. 앞으로, 지역주민을 포함한 도시교회와 농촌교회가 더욱 발전적인 협력모델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새가족이야기

지친이를 일깨우신 하나님사랑

김 용 성도 (6교구)

새가족모임을 마치고 찬양대원으로 섬김지 3주가 지난 지금, 나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드리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4주 동안의 새가족모임이 나를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나는 부모님과 같은 교회에서 주일학교와 청년 시절을 보냈고 찬양대에서 솔리스트까지 했었지만, 단지 권사인 어머니 체면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봉사였던 것 같다. 잡실로 이사를 온 후에도 영등포까지 교회를 다녔지만 어렸을 때부터의 내 모습 즉, 어머니의 재혼, 아버지의 사업실패 등을 다 아는 교회 분들의 시선의 불편함에 서서히 지쳐가며 억지로 다녔기에, 찬양대도 하기 싫었고 단지 예배만 드리고 싶었다. 그즈음 아내는 매일 주님의교회에서 새벽기도를 드리고 있었는데, 어느 주일날은 함께 주님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쏙쏙 들어오며 꼭 내게 주시는 말씀 같았다. 그런 모습에 의아했지만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실직 후 세상과 교회에 불만이 가득한 나에게 어느 날, 아내를 위해 새벽기도회나 같이 나가 주자는 마음에 같이 나가게 되었다. 그즈음 지금 하고 있는 기술을 배우게 되었고, 차츰 생활도 안정되어 가고 생각지도 못하게 집까지 생겼다.



세례교우간증

“저희 가정에 오신 하나님”

송 대 중 성도 (6교구)

나는 신림동에서 팔래방을 14년째 운영하며 사랑하는 어머니님과 아내와 2남1녀의 자녀와 행복하게 살고 있다. 누구나 그렇듯이 나에게도 어려움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나와 성격이 닮은 아들에 대한 걱정이었다. 아들을 위하여 돌파구를 찾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나에게게는 교회였다.

하지만 나에게 교회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치를 떠는 곳이었다.

누나는 어려서부터 신앙 생활을 잘 하고 있는 분이고 동생은 몇 년전 주님을 영접했다며 과거의 삶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나는 무속인을 따르며 굿도 하고 부적도 붙이고, 이 산 저 산 그리고 용궁(바다)까지 다니며 촛불을 밝히고, 매월 1일과 15일에는 한강에 가서 방생도 하고 가게에 나가면 가게 뒷 편에 만들어 놓은 제단에 촛불을 밝히고 정안수도 올리며, 과일이든 과자든 제일 좋은 것으로 올려놓고 기도를 하며 살았다.

매년 때가 되면 빗을 내서 굿도 하며 우리 가정과 사업장이 잘되게 해 달라고 치성을 드리기도 했다. 9년이라는 시간을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것 같다. 그러나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평안함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었다.

팔래방에 사업대감님이라고 모셔놓고 청사초롱 불밝히듯 치성을 드렸으나 나아지기보다는 힘들고 어려워지고, 우리 가족 잘 되게 해달라고 치성을 드렸더니 잘 된다고, 잘 될 것이라고 무속인은 말하지만 오히려 더욱 많은 어려

아내는 이 모든 게 새벽예배 드리는 우리 모습을 예쁘게 보시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기뻐했지만 그때도 하나님에 대해 반신반의한 상태였다.

지난 8월에는 교회에 등록하고 새가족모임에 참여하게 되었다. 첫 주에는 어색하고 불편한 마음과 다 아는 내용을 하러니 지겹기도 하였다. 2주차 모임 역시 불평하며 양육리더 집사님의 질문에도 통명스럽게 대답하였는데, 그럴수록 더 관심 가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집사님의 간증도 들으면서 원지모를 설레임이 느껴졌다.

그리고 함께 참여한 분들을 통해 나보다 더 힘든 환경에서도 신앙의 힘으로 살아가는 얘기를 듣고 내 자신이 정말 부끄러워졌다. 그동안의 불평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광에 불과했고 주위에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너무 우물 안 개구리처럼 살았구나 하며 회개하게 되었다. 4주째 모임을 하며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새 마음으로 헌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아내에게 찬양대 봉사를 제안했고, 그렇게 4부 찬양대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제는 하나님의 과녁에서 벗어나지 않고,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다. 새가족모임이 나처럼 방황하는 오래된 신자들에게도 얼마나 중요한 과정인지 새삼 깨달았다. 아직도 집 떠난 탕자처럼 교회에 다니고 있었을 내가 이제는 돌아온 아들로 하나님께 효도해야 할 것 같다. 새가족모임을 같이 했던 분들과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주신 양육리더 집사님, 앞으로도 나를 아끼고 이끌어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움을 겪게 되고, 큰 아들을 붙잡아 주지도 못했다.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어느 날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던 나의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집사람이 내 동생을 따라서 주님의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였고 걱정되던 아들도 엄마를 따라 교회에 나가는 것이었다. 또한 내 동생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삶의 모습이 내게 점점 더 깊은 생각을 하게 하였고, 그러던 중 계속되는 형제들의 권고와 기도로 내 마음이 드디어 열리게 되었다.

지금은 주일마다 어머니님과 큰아들, 작은 아들도 같이 앞자리에 앉아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다. 교회에 나오면서 방황하던 큰 아들이 점점 좋아지는 것을 보게 되고 내 마음도, 가족도 좋아지고 있음을 느낀다. 주님 앞에 나오면서 가족이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집안에서 큰소리가 나던 일도 줄어들고 웃음도 많아졌다. 지난 추석에는 온 가족이 처음으로 함께 중국여행을 하면서 모처럼 가족애를 마음껏 느낄 수 있었다.

요즘에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이 점점 많아진다. 아직도 주님을 잘 몰라서 시험에 들 때가 많지만 매일 하루의 시작과 끝을 기도와 성경봉독으로 하고 말씀을 쓰는 일에도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내려고 노력하면서 보내고 있다. 내 안에 와 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면서 세례교육을 받고 어머니, 아내와 함께 세례를 받게 되었다. 우리 가정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세례받은 후 이렇게 글을 쓰며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 우리 가족을 우상의 세계에서 건져주시고 구원의 세계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

추수감사절 및 이웃과의 쌀 나눔행사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쌀나눔 행사를 가졌다. 11월 15일 주일 현재까지 218명이 참여하여 쌀 293kg과 쌀나눔금 7,985,000원이 모아졌다. 그 중 200kg은 다음 4개 기관에 전달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쌀은 이외의 대상을 선정하여 전달하기로 하였다. 1)산성교회(김원일목사)와 노숙인 자활 공동체인 해돋는마을에 50포(20kg), 신성교회는 서울역에서 매주일과 수요일에 노숙인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양평 해돋는마을에서 취사를 준비하여 서울역광장에서 노숙인 약 500여명에게 배식을 하고 있다. 2)중증정신지체인(10~60세) 33명이 생활하는 구리 살롱의집(김금자원장)에 10포(20kg), 3)종로구 인근지역 노숙인 250여명에게 매일 아침(밤10시~새벽2시까지)을 제공하고 있는 거리의 천사들(윤진 중무)에 30포(20kg), 4)청량리역 앞에서 무의탁노인(65~80세 남자 12명)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매일 낮 12시에 예배를 드리는 사랑나눔 복지센터(오현혁목사)에 10포(20kg)를 전달하였다.



생명의

새가족 수료식 환영합니다!

새가족수료식! 이 날은 ‘새가족’에서 ‘가족’이 되는 날이다. 올해 초부터 11월 첫주일까지 모두 521명이 새가족모임을 수료하였다. 아직 등록을 하였으나 새가족모임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미루지말고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새가족모임 4주과정을 수료하면, 주님의교회의 지체요 가족으로서 거저씨소그룹에 연결되고, 사역팀에도 참여할 수 있다. 주님의 교회를 찾는 모든 이들이 이 과정을 통해 한가족이 되어 하나님나라와 복음에 헌신하기를!